

영상침입자 감지시스템 개발한 이젠텔레콤

집이나 소점포·사무실 등을 비울때 저렴한 가격으로 설치할 수 있는 보안장치인 '영상침입자 감지시스템 ESS-700' 을 개발한 벤처기업 이젠 텔레콤.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CCTV와 같은 감시장치와 경보장치를 하나로 묶은 최첨단 무인 보안감시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자동전화와 영상촬영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 침입사고가 발생할 경우 6곳에 자동으로 전화연락이 되고 42장의 현장사진을 남기는 기능이 있다. 값은 38만5천원

장기간 여행을 떠날 때나 평상시 집을 자주 비울 때, 또는 소규모의 점포나 사무실을 운영할 때, 가정이나 가게의 안전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달리 뽐족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의 치안에만 의존할 수도 없고, 은행이나 관공서에 설치된 CCTV나 경보장치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가정이나 소점포 등에 설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걱정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보안감시시스템을 출시한 벤처기업이 있다. 공기가 맑은 분당의 아파트형 공장 내에 위치한 이젠텔레콤(EZEN TELECOM, 사장:鄭琯壽)이 바로 그 주인공.

지난 3월 이젠텔레콤이 상품으로 출시한 영상 침입자 감지시스템인 ESS-700은 세계 최초로 CCTV와 같은 감시장치와 경보장치를 하나로 통합한 최첨단 무인 보안감시시스템이다. 열적외선 감지센서, 감시용 디지털 카메라, 리모컨 등으로 구성된 ESS-700은 적외선 감지 기능, 현장

감청 기능, 자동적인 전화발신 기능, 영상을 촬영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동시에 작동될 수 있다. 예컨대 ESS-700을 가동시켜 놓고 외출했을 때 외부 침입자가 들어오면, 체온을 감지한 센서가 작동하면서 고정된 카메라에 침입자의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기록된다. 동시에 미리 번호가 입력된 주인의 이동전화에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외부인의 침입사실을 음성메시지로 알려준다. 이 때 시스템에 장착된 고성능 컨덴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인은 이동전화로 외부 침입자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자동전화 통보...사진 42장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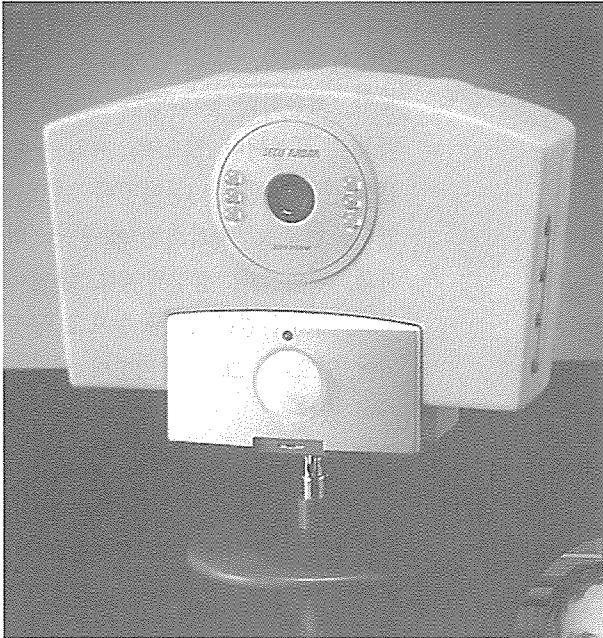
또한 시스템에는 모두 6개의 전화 번호를 입력할 수 있어서 주인의 이동전화 뿐 아니라 가까운 파출소 등에도 침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어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 범인검거에 실패했을 경우, 시스템을 TV와 연결하면 반도체 칩에 기록된 영상을 볼 수 있어 범인의 사진을 42장까지 확보할 수 있다. 또한

ESS-700은 리모컨이 목걸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홀로 사는 노인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족이나 119구조대, 이웃 등에 버튼 하나로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선택사양으로 카메라의 팬(pan)과 틸트(tilt) 기능을 부가할 수도 있고, 화재감지센서를 부착할 수 있다.

이젠텔레콤은 ESS-700을 개발하면서 '시스템의 소형화'와 '저렴한 가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이전에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영상을 시스템에 내장된 디지털 반도체 칩에 저장하였다가 TV를 통해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시스템의 크기나 가격 면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시스템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소형 board에 일체형으로 설계, 제작한 것도 시스템의 소형화에 도움이 되었다.

정광수사장은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기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부품을 찾으려고 밤을 새워가며 4, 5개월동안 인터넷으로 전세계의 부품을 검색했다"고 말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가격은 이전에 나온 기존 제품의 1/3 수준인 38만5천원이면서, 크기는 손바닥만한 영상 침입자 감지시스템 ESS-700이 개발된 것이다. ESS-700은 설치와 이동이 간편하여, 소비자가 직접 설치하는 데도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지난 95년 이젠시스템으로 출발한 이젠텔레콤은 주로 정부나 대기업 등에 방송장비와 정보통신 장비를 납품하던 회사였다. 그러나 IMF 이후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회사가 거



▲ 첨단 디지털 영상 침입자 감지시스템 ESS-700

▶ 정광수사장



의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집약적인 신제품 개발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광수사장은 지난 12년동안 전자, 정보통신, 보안장비 등 여러 분야의 첨단 신제품들에 대해 신문스크랩과 정보습득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보안시스템 시장의 무한한 잠재력을 깨달았다고 한다. 더욱이 지난 97년 과학기술처로부터 정부 보유 첨단기술 이양업체로 선정되어,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보유기술인 '방범/방재용 광센서 개발' 기술을 이전받으면서 ESS-700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영상 침입자 감지시스템의 기술개발에 성공, 한국원자력연구소를 활용하여 이미 테스트를 마친 상태이다.

해외에서 2백50만달러 주문

ESS-700은 출시되면서부터 그 기능의 다양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해외

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의 유명 보안기업체인 액션캠에서 1백만달러 규모의 주문이 들어온 것을 포함하여 이미 총 2백50만달러의 해외주문을 받은 상태이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커다란 호응을 받는 것은 첨단 보안 장치 개발된 이스라

엘이나 미국 등에서도 ESS-700과 같은 통합보안시스템은 개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내 보안장비 시장의 경우는 전체 규모가 1천억원 정도인데, 이젠텔레콤에서는 ESS-700이 올해 말까지 1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전자·통신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젠시스템은 현재 ESS-700으로 발명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을 포함하여 모두 7가지의 특허를 출원하였고, 지난 4월에는 경기도로부터 99년도 중소기업 수출기업화사업 대상기업으로, 한국원자력연구소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또한 본격적으로 아이디어를 중

심으로 하는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자본금 3억원을 가지고 주식회사 이젠텔레콤으로 벤처기업 등록을 했다. 제품의 생산은 아웃소싱(Outsourcing)할 예정인데, 벤처기업 고유의 기동성을 살리고 원활한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한다.

정광수사장은 ESS-700이 하이테크(Hi-tech) 상품이 아니라 하이터치(Hi-touch) 상품이라고 말한다. 즉, 이미 개발된 첨단기술들을 아이디어로 엮어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이터치 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일년에 한두가지 제품은 계속 개발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더욱이 '일품일조(一品一兆)', 즉 하나의 제품으로 1조원의 매출을 기록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다음 상품을 만들기 위한 기술개발에 돌입했다. 지난 3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을 구성, '디지털 영상 경보장치' 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기술이 개발되면 침입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한다.

꼼꼼함과 치밀한 준비로 회사를 운영해 온 정광수사장은 회사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서로간의 신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실력이 쌓여야겠죠"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벤처기업인에 대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다. (사이트 주소 : <http://www.ezen.co.kr>)

장미라(본지 객원기자)